

CEO 동경

철도 국가중요시설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6일 중앙선 양수대교 북한강 철교 초소를 방문해 철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점검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잦은 도발에 따라 국가 안보 태세 확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철도공단 동우회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2일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공단 동우회에 참석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공단이 적기에 건설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복주택부지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예정부지를 지난 23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국토교통부 장관, 수도권고속철도 현장방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수도권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수서역세권 개발, 수서~동탄 광역철도 공용구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서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온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공용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서역세권 개발 민자 공모 시에는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서 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특히 강조하고 민원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와 중복투자 방지,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했다.

<수도권본부 김현우 과장>

수인선 철도 수원시 구간 지하화

- 수원시, 공사비 부담...2016년 수인선 완전 개통 전망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수인선 수로로 지난해 6월 이미 개통돼 하루 14만~15만명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수원도심 고색동~오목천동(약2.99km)구간을 이 구간은 수원시의 지하화 요구에 따라 공사기간이 약 2년간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번 지하화 협약을 계기로 내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6년 완공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 구간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약 12만7000명이 철도를 이용해 서남부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녹색철도대학원』 제2기 입학식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임영록)은 국내 최초로 글로벌 철도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내 전문대학원인 『녹색철도대학원』의 제2기 입학식을 지난 7일 우송대학교에서 가졌다. 이날 입학식에는 김광재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과 우송대 총장, 교수진 및 입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철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가 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재은 건축/설비부장은 입학생 대표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중한 면학기회를 제공해 준 공단에 감사하며 신지식을 습득해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철도 전문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녹색철도대학원』은 경쟁력 있는 기술전문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설립된 사내대학원으로, 현장중심·문제해결 위주의 실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1월 우송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철도공학 석사과정 1기 25명을 시작으로 올해 2기 26명을 선발해 1년 6개월 과정으로 맞춤형 석사 학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도 전문 핵심인재의 꾸준한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구노력 통해 재무개선 앞장섰다!

-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로 지난해 929억원 부채상환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해 예산대비 비용절감 및 초과수입으로 마련된 929억원의 재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재무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원은 분기별 심사분석 및 월별 예산집행심의회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 엘리베이터 감속운행 등 정부정책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으로 마련됐다.

관리비 예산의 경우 1789억원 가운데 220억원(12%)을 절감한 1569억원(88%)을 집행했으며 태양광 발전, 레저용 시설투자, 전통시장 및 자전거 도로 조성 등 자산운영의 다각화와 임대수입 확대, 네 팔, 중국, 인도 등 해외사업 수주 확대, 수탁사업 수수료 수입(사업관리비) 등에서도 709억원을 순수입으로 벌어들였다.

본부는 2011년 415억원의 부채를 상환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24%(514억원) 증가한 929억원의 순부채를 상환해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는 2011년 8월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 등 6대 경영방침에 따른 전사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지난 한해 동안 사업비 1조205억원을 절감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철도건설로 인한 부채증가를 억제하고 선로사용료 증대, 국유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의 자구노력으로 CEO 취임이후 누적 2000억원의 순수 부채상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5.5%의 교통시설특별회계용 자금(15년 분할상환) 1조221억원을 저금리 채권(10년물, 3.18%)으로 조기상환해 약 4015억원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광역 및 일반철도 등 철도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시설 최적화 설계 및 시공으로 32개 사업에서 1조 3803억원의 총사업비를 감액해 새 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2013년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워크숍 개최!!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2013년 철도건설사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해 올 한해의 동반성장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전략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각 부서 실무담당자가 도출한 실행과제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계약행위를 근절하는 제도개선과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 포상제 추진 등 건강한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과제 6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운영, 민간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과제 8개, 동반성장 메신저 활동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과제 4개 등 총 18개 과제를 발굴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부서별 세부 추진내용과 목표가 포함된 과제정의서를 작성하고 타기관 벤치마킹 등의 자료를 최종 정리해 이달 중으로 '2013년 철도건설사업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획혁신본부 박대혁 기자>

